

# 경제활성화·일자리 가장 시급...사드 찬성 45.5·반대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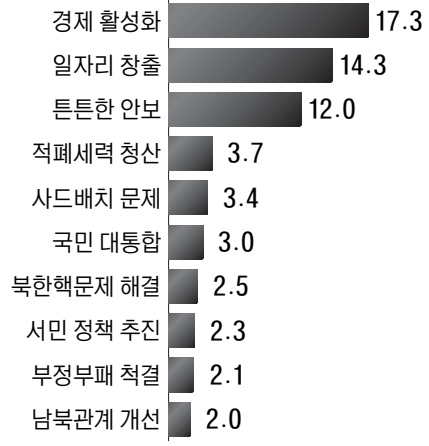
##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

60대 이상·보수층 ‘안보’  
중도·진보 ‘경제활성화’  
광주·전남, 일자리 꼽아

유권자들 대부분은 다음 대통령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줄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 결과 ‘다음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17.3%는 경기회복·경제활성화를 14.3%는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이외 특정한 안보(12.0%), 적폐세력 청산(3.7%), 사드배치 문제(3.0%), 국민대통합(2.5%), 북한핵문제 해결(2.5%), 서민 정책 추진(2.3%), 부정부패 척결(2.1%), 남북관계 개선(2.0)

## 차기 대통령 우선 해결 과제 <단위: %>



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 것이다. 지역별로 호남은 일자리 창출(17.7%), 다음이 경기회복·경제활성화(16.6%)였다. 강원외의 경우 특정한 안보(15.5%)에 이어 일자리 창출(13.6%), 경기회복·경제활

성화(12.2%) 순이었다.

특히 농도인 전남과 달리 광주에서는 26.0%가 일자리 창출을 우선 해결할 과제로 꼽아 실업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전남은 ‘경기회복·경제활성화(19.1%)→일자리 창출(18.6%)→튼튼한 안보(13.3%)’ 순이었다.

연령별로도 확연히 차이가 났다. 20대 이하 23.5%가 일자리 창출을 꼽았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안보(18.9%)를 들었다.

이념별로도 보수층과 중도·진보층의 생각은 달랐다. 보수층은 ‘튼튼한 안보(21.9%)→경기회복·경제활성화(16.9%)→일자리 창출(11.2%)’ 순으로 꼽았고 중도층은 ‘경기회복·경제활성화(21.0%)→일자리 창출(16.5%)→튼튼한 안보(10.4%)’, 진보층은 ‘경기회복·경제활성화(18.0%)→일자리 창출(16.9%)→튼튼한 안보(7.4%)’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사드 배치

광주·전라 반대가 더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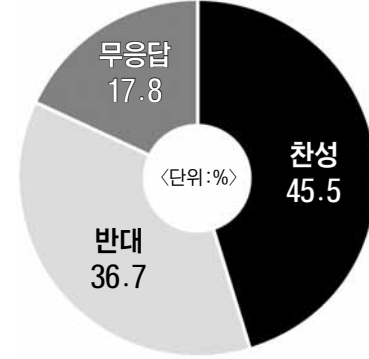
진보 반대·보수 찬성 압도적

찬반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관련,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5.5%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36.7%로 나타났고, 모른다·무응답 의견도 17.8%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사드 찬성 23.0%·17.5%, 사드 반대 57.6%·68.8%로 파악됐다. 자유

## 사드배치 찬반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지지층은 각각 87.9%·61.6%, 71.5%로 사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24.8%가 사드를 찬성했고, 58.8%가 반대했다. 반면 보수층에선 사드 찬성이 73.6%로 반대 의견 16.8%보다 높았다.

홍준표 후보 지지자는 88.6%가 사드를 찬성했고, 4.8%가 반대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 중에는 사드 반대(59.6%)가 찬성 20.9%보다 더 많았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는 64.4%가 사드를 찬성했고, 21.1%가 반대했다. 유승민 후보 지지자는 70.8%가 사드를 찬성했고 20.8%는 반대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광주와 전라, 제주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광주·전라, 제주권역에선 33.5%·41.0%가 사드를 찬성했고, 43.5%·42.6%는 반대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58.6%가 사드를 찬성했고 27.7%가 반대했다. 강원권역에선 56.0%가 사드를 찬성했고, 27.7%가 반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문재인 과반 득표 총력

“압도적 승리만이 국정 동력”

SNS 등 홍보전...투표 독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과반 득표 당선’을 위해 대선 레이스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과반 지지로 당선되는 것과 40%대 득표율로 당선되는 것은 집권 이후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 측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대 초중반의 지지율을 보이는 만큼 ‘숨은 5%’를 끌어들이 이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면서 선대위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두 공동특보단장은 이날 ‘사대문이나, 오대문이나’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0%대 초반의 지지율로는

선거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 보수의 급격한 단결과 표심의 유동성 때문”이라며 “50% 초반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60~70대 장년층에 비해 투표율이 떨어지는 20~30대를 사전투표 캠페인이나 SNS홍보전을 통해 투표장으로 최대한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선대위가 ‘신중년’이라고 명명한 50~6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선대위 내에서는 50대 유권자들의 지지를 흡수한 것이 지금의 안정적인 선두 질주에 큰 힘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표를 어떻게 흡수하느냐도 ‘숨은 5% 찾기’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당내에서는 선거 당일 ‘사표 방지 심리’에 따라 심 후보 지지층이 결국 문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임동욱기자 tuim@

## 안철수 ‘숨은 표’ 찾기

“선거 결과 뚜껑 열어봐야

구글 트렌드, 반등세 돌아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양강 구도’가 무너졌지만 대선 승리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선거결과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근거로는 지난해 4·13 총선을 들고 있다. 당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보다 실제 정당 득표율이 2배 가까이 높았다는 것이다.

대선과 총선의 차이점이 있고 선거 구도도 다르지만 안 후보 측은 이번에도 ‘숨은 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에 대해서도 문 후보 측 지지자들이 ‘과표 집’되고 있는 반면 사이 안철수 지지층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검색 빈도를 나타내는 측정 도구인 ‘구글 트렌드’에서 최근 2~3일 동안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막판 대역전극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여론조사에서는 패배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선거 결과는 압승을 거뒀다”면서 “구글 트렌드 등 빅데이터 분석만이 트럼프의 승리를 정확히 예측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의 이런 관측이 뒷받침되려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반등을 하는 등 추격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있어야 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앞 광장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홍준표 “호남표 10%만 달라”

선거운동 첫 방문...송정역 유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 표심 공략에 나섰다.

홍 후보는 이날 광주 송정역 유세에서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 중 광주 시민으로 산 사람은 홍준표 밖에 없다”며 “광주의 아픔, 호남의 아픔을 몸소 체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가 야권의 심장이고 자유한국당에 불모지인줄 알고 있지만 저는 제가 전북 부안”이라며 “우리 집 사람이 광주에 왔다 갔다.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역감정이 두터운 데, 이제 광주도 좀 달라져야 한다”며 “다른 사

람 90%를 찍던 말던 광주에서 10%만 찍어주면 내가 은혜 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날 전주 전동성당 앞 광장 유세에선 새만금 지역의 경우 재벌의 사내 유보금으로 기업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지금 새만금을 몰락이 공사예다 다 해놨지만 저거 저대로 두면 50년 돼도 개발이 안 된다. 국가 예산을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다”며 “전북에서 홍준표 20%가 나오면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홍 후보는 이날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이 집권하면 (이해찬이) 좌파 공화국의 상상이 돼 이 땅의 보수 세력을 문재인의 말대로 불태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文 “부정 축재 재산 전액 국가 환수”

적폐청산 특위 설치...검찰·국정원도 개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의외교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

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 30일 밤 서울 신촌로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검찰과 국정원을 확실히 개혁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겨냥하며 “쫓불광장에 안 나온 것을 자랑하는 후보가 자격이 있나. 탄핵에 반대하고도 반성이 없는 후보가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 반성 없이 문재인의 정권교체를 두려워하는 정치세력들이 연대해 정권연장을 꾀하고 총리도 장관도 나누고자 한다”며 “어떻게든 저 문재인 대통령 막겠다는

정치공학, 정권 아합이다. 부패 기득권 연장자가 쫓불민심 배신이다. 확실히 심판해 달라”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앞서 충남 공주의 공주대 앞에서 가진 유세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라며 “새 정부가 결정하고 국비 비준 동의를 거쳐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돈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광산구 오선동 공장(진곡산업단지내)**

대지 2531평 최저가 4,278,000,000  
건물 753평 감평가 6,112,000,000

**남구 주월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124평 최저가 348,000,000  
최고가 348,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

토지 1417평 최저가 321,000,000  
건물 484평 최고가 321,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최저가 2,521,000,000  
건물 577평 최고가 4,502,000,000

**서구 화정동 원룸(화정역인근)**

토지 94평 최저가 549,000,000  
대지 157평 감평가 784,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최저가 742,000,000  
건물 305평 감평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